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부연구위원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- **담당실장**: 기획조정실장 이동기 연구위원
(063-280-7181)

보도시점 : 2016년 12월 21일(수)부터

인구 중핵도시육성,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 제안 전북연구원, 전북 인구정책 4대 방향·6대 추진과제 제시

-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최근 진행된 전라북도 인구정책 분석을 토대로 '전라북도 4대 인구정책 방향과 6대 중점추진과제'를 정책브리프로 발간했다.
- 전라북도 인구는 2001년 199.9만명에서 2009년 185.4만명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 187.4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2015년 186.9만명으로 완만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.
- 전라북도 인구변화의 특성은 전주, 군산, 완주 등 도시권 인구는 증가하지만 그 외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, 장년인구는 유입되고 있지만 청년인구는 유출되고 있고,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유는 일자리가 가장 높다는 특성을 보였다.
-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인구분석에 기초해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방향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유지, 저출산·고령화시대 대응, 생산가능인구 유지·관리, 도농 인구불균형 관리로 설정했다.

- 전북연구원은 통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6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.
- 첫째, 전라북도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전담부서로 행정부지사 산하에 인구정책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.
- 둘째, 과소화마을 현황, 인구변화에 따른 산업과 정책서비스 체계 변화, 인구집중관리지표 개발 등을 위한 인구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다.
- 셋째, 산간지역에서 읍·면 및 군청소재지로 그리고 전주 도시권으로, 다시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이동경로에 권역별로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핵도시 육성이 필요하다.
- 넷째,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지역에서 해나갈 일정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면단위 생활경제권을 활성화 해야한다.
- 다섯째, 청년창업학교운영 및 청년창업자 주거지원, 입주공간지원, 창업자금지원, 데스밸리 극복지원, 상품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의 거점으로 청년창업특구조성이 필요하다.
- 여섯째, 2017년부터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의 적극적 고용확대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외국인 인재의 적극적 유입전략이 필요하다.
- 김동영 박사는 “인구정책은 이제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